

대칭대명사의 사용빈도 변화에 관한 연구*

민 승 희**

(e-mail: shmin@jwu.ac.kr)

目 次

1. 서론
 2. 선행연구
 3. 사용빈도의 증가와 감소
 4. 사용빈도의 증감에 관한 분석
 - 4-1. 새로운 사회계층(町人)의 등장
 - 4-2. 上方와 江戸의 대립
 - 4-3. 특수어의 일반화
 5. 결론
-

1. 서론

近世 前期에는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중심이 京都, 大阪로 대표되는 上方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後期에는 그 중심이 江戸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문학의 융성도 이에 발맞추어 발달하였기에, 문학사에 있어서 18세기 전반까지를 上方문학의 시대, 이후를 狹義의 江戸문학의 시대라고 부른다. 즉 문학사나 語史연구의 시대구분도 정치사에 준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언어가 그 시대의 사상, 계급, 풍습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표현이고, 그러한 인간관계는 정치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정치사에 준거하여, 근세를 徳川家康가 江戸에 막부를 열었을 때부터(1603년) 明治維新까지로 하고, 宝曆를

* 이 논문은 중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과제번호:2014-007)

** 중원대학교 부교수

경계로 하여 근세를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그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통시언어학은 어떤 현상을 여러 시대에 걸쳐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공시 언어학의 상반되는 개념이다. 통시언어학은 언어를 역사가 흐르는 동안 축적된 변화의 결과물로 본다. 따라서 통시언어학에서는 어원, 계통, 음운, 문법의 추이 등에 주목한다. 이러한 통시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논문은 근세 前期부터 後期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칭대명사의 사용빈도가 어떻게 변화 했는가 그 추이에 주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어의 인칭대명사는 사회구조의 변화나 문화의 변동 등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왔다. 특히 근세의 인칭대명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前期에는 문화, 정치 사회의 중심이 上方에 있었지만, 後期에는 그 중심이 江戸로 이동함에 따라, 언어에 있어서도 무게중심이 上方語에서 江戸語로 이동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본 논문은 근세의 인칭대명사 가운데에서도 세부적으로 대칭대명사로 그 고찰 범위를 좁혀서, 근세 前期에서 後期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칭대명사의 사용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와 더불어 그 변화 요인을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인칭대명사 가운데, 먼저 대칭대명사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자칭대명사보다 대칭대명사의 사용빈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 속도가 빨랐던 대칭대명사를 먼저 연구대상으로 하여 보다 명확한 변화 현상 및 원인을 찾아보고자 함에 있다.

2. 선행연구

근세 前期 上方語의 인칭대명사에 관한 연구로는 湯沢幸吉郎(1982)의 『徳川時代語の研究』, 山崎久之(1963)의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 坂梨隆三(1987)의 『江戸時代の国語—上方語—』 등이 있다. 湯沢幸吉郎(1982)¹⁾은 근세 前期 대명사의 사용례를 문학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사용례의 제시에 머물러, 각각의 대명사 용법에 관하여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으로, 坂梨隆三(1987)²⁾은 근세의 음운, 문자, 표기, 문법, 경어 등 폭넓게 근세어 전반에 걸쳐 논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근세 前期의 인칭대명사의 대우가치에 대하여서도 분석하고 있어서, 대우표현 연구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

1) 湯沢幸吉郎(1982) 『徳川時代語の研究』 風間書房 pp.37-46

2) 坂梨隆三(1987) 『江戸時代の国語—上方語—』 東京堂出版 pp.199-225

다. 山崎久之(1963)³⁾는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에서 대우표현을 결정하는 각각의 조건을 고려하면서, 객관적으로 인칭대명사의 대우가치를 객관적으로 규명, 기술하고 있다. 인칭대명사의 대우가치 파악에 있어서, 술어와의 관계뿐 아니라, 話者の 性, 신분, 청자와의 관계, 장면적 요소, 소재 등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성 높은 연구 방법을 통해, 대칭대명사를 경의도에 따라 5단계 (お前단계, こなた단계, そなた단계, そち단계) 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근세 인칭대명사의 연구에 큰 획을 긋는 상당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근세 後期 江戸語에 관한 연구로는, 小島俊夫(1982)와 田中章夫(1973)의 연구가 두드러진다. 小島俊夫(1982)⁴⁾는 대칭대명사를 대우가치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田中章夫(1973)⁵⁾는 대칭대명사의 어법설명이나 대우가치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이지 않으나, 근세 前期의 上方語와 후기의 江戸語의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또한 이점은 前期부터 後期로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본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종래의 연구에 있어서의 통시적 대칭대명사연구를 살펴보면, 辻村敏樹(1994)⁶⁾의 「きさま」에 관한 연구와 江湖山恒明(1938)⁷⁾의 「おまへ」에 관한 통시적 연구가 대표적이다.

위와 같은 근세어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세 대칭대명사 전반을 다루면서, 각각의 대칭대명사 사용빈도의 변화와 사회변동을 연관 지어 고찰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3. 사용빈도의 증가와 감소

기존의 연구는 근세를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사용된 대칭대명사의 종류, 용법, 대우가치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필자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近世日本語の人称代名詞の特徴』에서 근세 前期와 後期の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각각의 대칭대명사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고찰을 바탕으로, 前期에서 後期로의 변화와 그 요인에 중점을 두는 연

3) 山崎久之(1963)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 武蔵野書院 pp.70-206

4) 小島俊夫(1982) 「滑稽本・人情本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 5.近世の語彙』 笠間書院 p.252

5) 田中章夫(1973) 「近世敬語の概観」 『敬語講座 4.近世の敬語』 明治書院 pp.16-19

6) 辻村敏樹(1994) 『敬語の史的研究』 東京堂 pp.175-208

7) 江湖山恒明(1938) 「「おまへ」の系譜」 国語と国文学15-2 東京大学国語文学会 pp.49-64

구이다. 따라서 바탕이 되는 각각의 시기의 문학작품 속의 대칭대명사의 용례수를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1>은 근세 前期에는 사용이 빈번하였으나, 後期에 사용빈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대칭대명사의 용례 수 변화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2>는 근세 前期에는 사용용례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사용빈도가 낮았던 대칭대명사가, 근세 後期에 빈번하게 사용된 대칭대명사의 용례 수 변화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고찰대상으로 한 근세 前期 자료는 紀海音와 近松門左衛門의 淨瑠璃이며, 근세 後期 자료는 洒落本·滑稽本·人情本을 다루고 있다. 문헌자료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 가) 淨瑠璃와 洒落本·滑稽本·人情本은 각각 근세 前期와 後期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이다.
- 나) 작품에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여 다양한 인간관계가 묘사되어 있기에 인칭대명사연구에 적합하다.
- 다) 회화체의 언어 고찰이 용이한 작품으로, 본 대칭대명사의 조사대상을 회화체에 나타난 대명사에 국한시켰다.

<표1> 前期에 비해 後期에 용례수가 감소한 대칭대명사⁸⁾

代名詞		時期	近世前期 淨瑠璃의 使用例数	近世後期 洒落本·滑稽本· 人情本の 使用例数
対称 代名詞	あなた		201例	8例
	そなた		284例	12例
	おぬし		51例	9例
	わがみ		43例	1例
	わごりよ		32例	1例
	そち		107例	3例
	おのれ		139例	13例
	こなさん·こなさま		83例	15例

8) 민승희(2007) 『近世日本語 人称代名詞の特徴』시간의 물레 p.192
근세 전기의 조사 대상 문학작품 목록은 자료 편에 첨부함.

<표2> 前期에 비해 後期에 용례수가 증가한 대칭대명사⁹⁾

代名詞		時期	近世前期 淨瑠璃의 使用例數	近世後期 洒落本·滑稽本· 人情本の 使用例數
対称 代名詞	あなた		0例	122例
	おまへさん、おめへさん		1例	147例
	おめへ		0例	541例
	てめへ		0例	266例
	きさま		7例	55例
	おまはん		0例	44例

위의 <표1>과 <표2>에 나타난 이외에도 다양한 대칭대명사¹⁰⁾가 근세에 존재 하였으나, 위 표에서는 근세 前期에서 後기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사용 빈도가 변화한 대칭대명사만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前期와 後期の 사용빈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대칭대명사를 고찰대상으로 하여, 그 변화의 요인을 근세 당시의 사회 현상과 관련지어 통시적,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4. 사용빈도 증감에 관한 분석

근세의 대칭대명사의 사용빈도 증감에 미친 사회적 요소를 크게 근세 後期에 새로운 사회계층(상인계층)이 사회적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점, 근세는 다른 시기와는 달리 上方과 江戸가 정치, 문화적으로 대립하며 사상적 특징을 지녔다는 점, 그리고 언어의 일반적 현상인 특수어의 일반화 과정이라는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4-1. 새로운 사회계층(町人)의 등장

4-1-1. 「おめへ」 「てめへ」의 등장

「おめへ」와 「てめへ」는 上記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근세 前期의 淨

9) 민승회(2007), 上掲書 p.205

근세 후기의 조사 대상 문학작품 목록은 자료 편에 첨부함.

10) 근세에는 이외에도 「うぬ」「お身」「身」「てまへ」「きへん」「ごへん」 등의 다양한 대칭대명사가 존재했다.

瑠璃에서는 그 용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표2>을 보면, 後期の 洒落本·滑稽本·人情本에서는 「おめへ」는 541예, 「てめへ」는 266예로 가장 용례 수가 많은 대칭대명사이다. 즉 「おめへ」, 「てめへ」 근세 前期에는 전혀 사용이 없었던 대칭대명사였음에도 불구하고, 後期에는 사용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해 대표적인 대칭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江戸語의 음운상의 특징으로, 連母音의 장음화를 들 수 있다. 前期에 최고의 경의를 나타냈던 대칭대명사인 「おまへ」로부터 「おめへ」, 「てまへ」로부터 「てめへ」이 나온 것으로, 連母音의 장음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連母音의 장음화는 무사나 상층의 계층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ai] → [e:] 는 漢語보다 和語쪽에서 많이 보이고, 또 서민가운데에서는 하층일수록 漢語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¹¹⁾. 이와 같은 현상으로부터 「おめへ」, 「てめへ」가 상층계급의 사람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서민상인계층(町人)¹²⁾에 의해 생긴 대명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おめへ」, 「てめへ」는 서민상인계층(町人)에 의해 생긴 대명사이기에, 자연스럽게 「おめへ」, 「てめへ」에는 서민상인계층(町人)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해, 小松寿雄 (1971)¹³⁾는 江戸語에서는 대우가치가 낮은 단계에서 새로운 인칭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江戸語에서는 인칭에 국한되지 않고 명령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江戸語에서는 聽者を 중시하는데, 신분이 비교적 높지 않는 聽者を 중시하는, 그것이 「おめへ」와 「てめへ」, 또는 명령표현 등에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근세 後期에 문화의 중심이 서서히 서민상인계층(町人)으로 옮겨짐에 따라 [신분이 비교적 높지 않는 聽者を 중시한다]고 하는 생각이 생겨나서, 그러한 생각은 언어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하위대우표현¹⁴⁾이 발달하게 되고, 「おめへ」, 「てめへ」의 발생을 촉진시켰다고 여겨진다. 자연스럽게 「おめへ」, 「てめへ」와 같이 근세 後期에 주로 서민계층의 話者が 대등 또는 아래 사람의 聽者에게 사용하는 하위대우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래의 [例1], [例2]는 「おめへ」의 예문이고, [例3]은 「てめへ」의 예문으로, 모두 근세 後期の 용례이다. [例1]은 유곽의 손님인 대부호의 아들이 유녀를 「おめへ」라고 부르는 있는 장면이고, [例2]는 나이든 학자가 상인을 「おめへ」라고 부르는 있는 장면으로, 모두 손아랫사람에게 사용된 하위대우표현이다. [例3]은 상인들끼리의 대화로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된 「てめへ」의 예문이다.

11) 金田一春彦(1988)『日本語百科大辞典』大修館書店 p.97

12) 町人は 일반적으로 일본 근세 시대에 상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후 동일한 의미로 町人을 사용한다.

13) 小松寿雄(1971)『近代の敬語Ⅱ』『講座国語史5.敬語史』大修館書店 pp.322-323

14) 小松寿雄(1971) 上掲書 p.336

- [例1] よくおめへおゐら^らを責めるふ。 (『春告鳥』 p.393)
 <鳥雅 (客、大富豪の息子) →薄菊 (遊女) > (하위대우표현¹⁵⁾)
- [例2] ハテ、おめへかたは粗末にしなざるから、金が逃て行ます。 (『浮世風呂』 p.257 >
 <晩右衛門 (隱居) →産 (町人) > (하위대우표현)
- [例3] ナゼてめへ手を延すことはならねへか。 (『東海道中膝栗毛』 p.495)
 <弥次郎兵衛(中層상인) →北八(中層상인)> (대등대우표현)

더욱이 주목할 만한 것은 「おめへ」, 「てめへ」는 「おまへ」, 「てまへ」에서 생겨난 대명사이지만, 「おまへ」, 「てまへ」와 유사한 대우가치를 지니면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독자의 대우가치를 가지고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江戸語인 「おめへ」, 「てめへ」가 上方語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능동적인 자세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능동성은 後期 서민상인계층(町人)이 사회 중심세력으로 능동적으로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민상인계층(町人)이 근세 後期 사회의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おめへ」와 「てめへ」가 後期에 사용빈도가 높은 대칭대명사로 자리매김하였고, 더 나아가 서민상인계층(町人)의 능동성이 언어체계에도 영향을 미치어, 「おめへ」, 「てめへ」가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대표적인 대명사로 근세 後期 대칭대명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주체의 사회적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사용하는 대명사도 더불어 언어체계에서 발달하게 된 경우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おめへ」, 「てめへ」의 사용빈도의 증가는 서민상인계층(町人)의 등장 및 세력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1-2. 「おぬし」 「わがみ」 「わごりよ」의 쇠퇴

「おぬし」, 「わがみ」, 「わごりよ」는 근세 前期 上方에서 대등한 관계의 사람에게 쓰여 대등대우표현을 나타내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여 하위대우표현으로 널리 사용된 대명사이다. 上記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前期에 「おぬし」는 51예, 「わがみ」는 43예, 「わごりよ」는 32예 보인다.

아래의 [例4], [例5], [例6]은 모두 근세 前期의 용례이며, [例4]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わごりよ」를 사용하고 있는 용례이다. [例5]는 무사들 간의 대화로 話

15) 본 논문의 논지는 대칭대명사의 대우가치과약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우표현은 크게 상위대우표현(손윗사람에 대하여 사용), 대등대우표현(대등한 관계에서 사용), 하위대우표현(아랫사람에 대하여 사용)의 3단계로만 나누도록 하겠다.

者と 聴者は 친구사이로 「おぬし」를 사용하고 있다. [例6]은 어느 부인이 지인의 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즉 [例4] 와 [例5]는 대등대우표현이고 [例6]은 하위대우표현이다.

[例4] わごりよが好いたお出請出し、女房に持たせ、半年もたたぬうち、所帯破つて、親方の巾ひもならぬやうにはえせまい。 (『女殺油地獄』 p.538)

<徳兵衛(継父、町人) → 与兵衛(息子)> (대등대우표현)

[例5] こりや権三、相手はおぬしが月毛馬、こつちへ渡せ。 『鍵の権三重帽子』 p.318)

<伴之介(武士) → 笹野権三(武士)> (대등대우표현)

[例6] これ十二違うても見事わがみたちのやうな子を持つた。 『鍵の権三重帽子』 p.324)

<さる(他家の内儀) → お菊(他家の娘)> (하위대우표현)

한편, 上記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後期の 洒落本·滑稽本·人情本에서는 「おぬし」는 9예, 「わがみ」는 1예, 「わごりよ」는 1예밖에 보이지 않는다. [例7], [例8]은 모두 근세 前期의 용례로, [例7]는 무사가 하인을 「わごりよ」라고 称하고 있으며, [例8]은 주인집의 안주인이 하인을 「おのし¹⁶⁾」라고 称하고 있는 장면이다. 즉 [例7]과 [例8]은 모두 하위대우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例7] 伝助わごりよもひとつのみやれ。 (『東海道中膝栗毛』 p.124)

<Ø¹⁷⁾(武士) → 伝助(下人)> (하위대우표현)

[例8] おのしはの、跡へ残つてゆるりとして流してお出で、わたしがお共するから能よ。

(『浮世風呂』 p.150)

<Ø(主家の内儀) → やす(下人)> (하위대우표현)

上方語의 감소는 말할 것도 없이 江戸語의 발달 및 사용증가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おぬし」, 「わがみ」, 「わごりよ」의 사용감소는 「おめへ」, 「てめへ」의 점차적인 사용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おぬし」, 「わがみ」, 「わごりよ」와 「おめへ」, 「てめへ」는 모두 대등 또는 하위 대우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나타내는 대우가치의 영역이 유사하다. 대등 또는 하위대우표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16) 근세 前期의 「おぬし」는 後期에 「おのし」로 사용되는 경향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음운상의 변화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17) Ø는 화자의 이름이 확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의도가 하락하여 최하위 대우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おぬし」, 「わがみ」, 「わごりよ」는 근세 後期에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おまへ」, 「てまへ」가 上方語이었기에 독자적인 성장을 꾀하는 江戸에 받아들여지기 힘들었고, 더불어 근세 後期 江戸에 유사한 대우가치를 나타내는 「おめへ」, 「てめへ」와의 경쟁에서 밀려, 언어의 효율성의 법칙에 의해 유사한 용법의 「おぬし」, 「わがみ」, 「わごりよ」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4-2. 上方와 江戸의 대립

4-2-1. 「あなた」 「きさま」의 수용

「あなた」는 上記의 <표2>에서 보듯이, 근세 後期 자료에 122예나 등장하는 사용빈도가 높은 대명사이지만, 본 연구 자료에서 「あなた」의 근세 前期의 용례는 없었다. 그러나 「あなた」의 발생에 대하여, 湯沢幸吉郎(1982) 18)는 2인칭으로 사용된 「あなた」의 예는, 宝曆경부터로 보이며, 이는 上方語에서이고, 江戸語에서는 그 발생은 明和경이라고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小松寿雄(1971) 19)도 대칭대명사 「あなた」는 上方에서는 일찍이 宝曆3년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지만, 江戸語에서는 明和기의 자료부터 보인다고 언급하도 있다. 즉 上方에서 먼저 「あなた」가 대칭대명사로 사용되었고 근세 後期에 上方에서 江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おぬし」, 「わがみ」, 「わごりよ」 등의 대등 또는 하위대우표현의 대명사가 前期 上方에서 後期 江戸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점차 사용이 감소된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즉 하위대우표현과는 달리 상위대우표현의 대칭대명사 「あなた」는 上方에서 江戸로 받아들여져서, 江戸에서 널리 쓰이게 된 것이다. 아래의 [例9]는 근세 後期에 話者인 町人이 聽者인 무사를 높여 「あなた」라고 称하고 있는 장면이다. [例10]은 「あなた」의 상위대우표현 용례로, 話者인 下女가 聽者인 他家의 안주인을 높여 「あなた」라고 称하고 있는 장면이다. 즉 [例9]과 [例10]은 모두 상위대우표현으로 쓰인 근세 後期 「あなた」의 용례이다.

[例9] あなたは三十七八にも、おなりなれますか。 (『東海道中膝栗毛』 pp.126-127)
 <北八(町人, 여행객) → ∅(武士, 여행객)> (상위대우표현)

18) 湯沢幸吉郎(1982) 前掲書 p.46

19) 小松寿雄(1971) 前掲書 p.336

- [例10] いへもうわたくしの旦那をお誉め申すもいかゞでございますが、惣別お気立のよいおかたでネ。おまへさん。あなたがお屋敷にお出遊す自分は、お部屋中で評判のお結構人でございます。(『浮世風呂』 p.150-151)
 <やす(下女) → Ø(他家의 内儀)> (상위대우표현)

위의 예와 같이 上方語가 江戸에서 최상위의 대우가치를 나타내며 널리 사용된 것은, 上方語적인 표현은 주로 경의가 높은 표현으로 江戸語에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寺島浩子(1981)²⁰의 지적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 지적은 대명사에 관한 지적은 아니지만, 그러한 上方語의 전반적인 특징이 대칭대명사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上方語가 江戸語보다 품위가 있다고 여기는 일종의 고정관념 때문에, 江戸語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발달해 가며, 스스로 새로운 어휘를 서서히 만들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上方語的 요소를 배제해 나가는 근세 後期에 있어서도, 대우가치가 높은 「あなた」는 上方에서 江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위대우표현의 대칭대명사인 「あなた」는 근세 後期까지 이어졌으며, 대등 또는 하위대우표현의 대칭대명사는 上方語가 근세 後期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큰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きさま」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きさま」는 그 용례는 7예밖에 없지만, 근세 前期에 이미 사용된 대칭대명사임에는 분명하다. 아래의 [例11]은 근세 前期 「きさま」의 용례로, 「きさま」가 이미 근세 前期부터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랫사람인 手代²¹가 他家의 딸에게 경의를 나타내며 「きさま」를 사용하고 있기에 상위대우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例11] この以前貴さまが津山玄三殿に奉公した時から惚れてゐたこの由兵衛、是非思ひを晴らさうなら、そなたの口へ手拭振込んで、寝る術も知つたれど、それは恋とはいはれぬ。(『今宮の心中』 p.98)
 <由兵衛(手代) → きさ(他家の娘)> (상위대우표현)

「きさま」에 대해 辻村敏樹(1994)²²는 「貴様」라는 문자에 의해 알 수 있듯이 경의를 가지고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きさま」도 「あなた」와 마찬가지로 경의가 높은 대명사로 인식되었기에 上方에서 江戸로 받아들여져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あなた」와는 달리, 「きさま」의 대우가치는 근세 後期에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하겠다.

20) 寺島浩子(1981) 「近世敬語と現代敬語」 『講座日本語学9.敬語史』 明治書院 p.209

21) 手代는 상점에서 番頭(수석 종업원)아래, 丁雉(겸수점원)위에 위치하는 종업원을 뜻한다.

22) 辻村敏樹(1994) 前掲書 p.205

[例12] 에서 「きさま」는 목욕탕의 손님이 일하는 직원에게 「きさま」를 사용하고 있다. 즉 하위대우표현으로 쓰인 「きさま」의 근세 後期の 예문으로, 이로써 「きさま」는 근세 前期에서 後期로 이어져 사용되었고, 대우가치가 근세 後期에 이미 상당히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例12] きさまは越後に生れてもそんなめに遇ねへのだ。 (『浮世風呂』 p.251)

<とび (風呂の客、町人) → ∅ (番頭) > (하위대우표현)

정리하면 「あなた」와 「きさま」는 품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上方語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의식이 언어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생각한다.

4-2-2. 「こなた」「そなた」의 쇠퇴

上記의 <표1>과 <표2>를 보면, 근세 前期에 「こなた」는 201예, 後期에는 8예밖에 보이지 않는다. 「そなた」도 前期에 284예, 後期에는 12예밖에 보이지 않는다. 두 대칭대명사 모두 後期에 사용빈도라 급격하게 감소한 대명사이다. 이 두 대명사는 근세 前期에는 매우 사용빈도가 높은 대명사이므로, 「こなた」와 「そなた」는 근세 前期를 대표하는 대칭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例13] [例14] 과 같이 근세 前期에 「こなた」는 손윗사람이나 대등한 사람에게 사용되었고, [例15] [例16] 와 같이 「そなた」는 손아랫사람이나 대등한 사람에게 사용되었다. 즉 「こなた」는 대등 또는 상위대우표현으로, 「そなた」는 대등 또는 하위대우표현으로 사용되었다.

[例13] こなたのは御存じござらぬか。 (『淀鯉出世滝徳』 p.506)

<新七 (下人) → 勝三郎 (若旦那) > (상위대우표현)

[例14] こなたのやうな長鳴が忌事ぢや。 (『鍵の権三重帽子』 p.331)

<∅ (他家の下女) → ∅ (他家の乳母) > (대등대우표현)

[例15] 何かそなたの商売ぞ。 (『冥土の飛脚』 p.38)

<八右衛門 (友、町人) → 忠兵衛 (友、町人) > (대등대우표현)

[例16] そなたもまだ寝やらぬの。 (『大経師昔暦』 p.220)

<さん (奥様、大経師の妻) → 玉 (下女) > (하위대우표현)

「こなた」와 「そなた」가 근세 前期 上方을 대표하는 대칭대명사이었기에, 後期에 上方의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자적 성장을 하는 江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언어에는 사회, 정치, 당시 언어사용자의 의식 등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근세 後期에 上方과 江戸는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에, 사람들의 의식도 上方과 江戸는 차이가 생겼을 것이다. 전통을 중시하는 上方에 비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회 건설 등 변화에 중점을 두는 두 지역의 대립 또는 차이는 언어에도 영향을 미쳐서, 江戸의 사람들은 기존의 上方의 대표적인 대칭대명사 「こなた」와 「そなた」를 받아들여 上方의 언어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꺼렸을 것이다. 上方의 대표적인 대칭대명사를 사용하기보다는, 江戸에서 새로운 독자적인 대칭대명사를 사용하기를 지향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변화를 지향하고 上方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근세 後期 江戸의 특징이 언어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上方과 대립하는 江戸의 사회적 특성이 언어 체계에 영향을 미치어, 上方語의 전통적인 대칭대명사로 인식되는 「こなた」와 「そなた」는 사용이 감소해 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後期 江戸자료에서 보이는 몇 개의 「こなた」의 예문을 보면, 사용주체가 노인이나 무사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이 느린 사람들 사이에서 「こなた」의 사용이 보이고, 근세 後期の 새로운 주역인 상인층에서의 「こなた」의 사용은 보이지 않는다. 즉 변화지향성이 낮은 무사어나 노인어에서는 「こなた」, 「そなた」의 사용이 보이고, 변화지향성이 높은 町人の 언어에서는 용례가 보이지 많은 큰 특징 있으며, 이는 언어에 당시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例17] 은 무사가 서민상인계층(町人)에게 「こなた」를 사용하는 근세 後期の 하위대우표현으로써의 「こなた」예문이다.

[例17] こなたと夫婦の契約をした上は、たとへ親兄弟の差図でも、ほかへ縁につかずこたア
いやだといふ (『東海道中膝栗毛』 p.53)
<兵太左衛門(武士) → 弥次郎兵衛(町人)>

정리하면, 江戸의 사람들은 전통보다 江戸 독자의 사상을 추구하였기에 이러한 생각은 언어에도 반영되어 「こなた」와 「そなた」는 근세 後期 江戸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쇠퇴하였다.

4-3. 특수어의 일반화

「こなさん・こなさま」는 근세 前期의 작품에서는 여성,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遊女の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칭대명사이다. 아래의 [例18]은 근세 前期의 「こなさん」의 예문으로, 遊女가 손님인 무사를 「こなさん」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위 遊女語로써의 「こなさん」의 사용은 근세 前期 「こなさん・こなさま」의 가장 대표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例18] こなさんたちの顔見たいと思ふをりふし、呼びにきたを幸ひに、ここまで来ました。
(『夕霧阿波鳴渡』 p.122)
<夕霧 (遊女、恋人) → 伊左衛門 (武士、恋人) >

그러나 아래의 [例19]는 근세 前期의 용례이지만, 「こなさま」의 사용주체는 남성이다. 즉 [例19]와 같이 근세 前期에 「こなさん・こなさま」의 남성의 사용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 용례 수는 적으나, 「こなさん・こなさま」를 남성도 사용하기 시작한 것 前期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例19] その子はわたくし、こな様の腹から出た、与之介はわしぢやわいの。
(『丹波与作待夜の小屋節』 p.447)
<与之介 (息子、召使) → 滋野井 (母) >

한편, 前期에 83예의 사용례가 있었으나, 後期 자료인 洒落本・滑稽本・人情本에서 「こなさん・こなさま」의 용례 수는 감소하여 15예에 그치고 있다. 아래의 [例20]은 근세 後期の 「こなさん」의 남성 사용례이다.

[例20] もしもいとめがしにおると、こなさんは解死人じや。 (『東海道中膝栗毛』 p.434)
<Ø (夫、宿の亭主) → Ø (妻) >

일반적으로 遊里語는 손님에 의해 遊里語로부터 町人語로 확대된다²³⁾. 즉 「遊女語 → 一般女性語 → 男女共用語」의 과정을 가치는데, 「こなさん・こなさま」의 경우, 遊里語로부터 男女共用語로 되는 과정 중에서, 세력을 잃고 감소한 대칭대명사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근세 前期의 「こなさん・こなさま」의 자리를 대신해서 근세 後期에 遊女에 의해 사용된 대명사가 「おまはん」이다.

[例21]은 근세 後期에 遊女가 손님에게 「おまはん」을 사용하고 있는 예문이다.

23) 杉本つとむ(1975) 『女ことば誌』 雄山閣 p.186

- [例21] モウ若旦那おまはんが、そんなにやさしく言て呉さつしやると、……どんなことがあつても
 変る心を出しておくんさいますナヨ。 (『春色梅児誉美』 p.57)
 <米八(遊女) → 丹次郎(唐琴屋の養子)>

5. 결론

근세 前期부터 後기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上方語와 江戸語는 서로 다르게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본고에서는 대칭대명사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 변화 양상과 변화 요인을 고찰하였다. 대칭대명사 중에서 근세에 변화가 두드러진 대명사는 「おめへ」, 「てめへ」, 「おぬし」, 「わがみ」, 「わごりよ」, 「あなた」, 「きさま」, 「こなた」, 「そなた」, 「こなさん·こなさま」 등을 들 수 있다.

근세 後期에는 「おめへ」, 「てめへ」가 多用되었는데, 「おめへ」, 「てめへ」는 근세 前期에는 사용예가 보이지 않는 대명사로 대등 또는 하위의 聽者에게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그다지 대우가치가 높지 않은 대칭대명사 「おめへ」, 「てめへ」가 後期에 多用된 것은, 근세 後期에 서민상인계층(町人)이 사회적 중심세력으로 등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おめへ」, 「てめへ」의 성장으로 인하여 유사한 대우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근세 前期의 「おぬし」, 「わがみ」, 「わごりよ」는 자연스럽게 근세 後期에는 사용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あなた」, 「きさま」는 上方에서 江戸로 이어져 근세 後期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이는 「あなた」, 「きさま」의 대우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당시 上方語를 품격 있는 말로 여겨지는 고정관념에 기인하여 後期에도 널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등 또는 상위의 聽者에게 사용되었던 「こなた」나, 대등 또는 하위의 聽者에게 사용되었던 「そなた」는, 근세 後期에는 변화에 느린 무사나 노인어에서만 발견되며 그 사용량은 감소한다. 이는 근세 前期를 대표하던 대칭대명사가 「こなた」, 「そなた」이었기에 변화를 지향하던 後期 江戸語에서는 「こなた」, 「そなた」를 수용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こなた」, 「そなた」의 사용감소는 前期 上方語의 쇠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칭대명사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こなさん·こなさま」의 경우, 근세 後期에 遊里語로부터 일반여성어와 男女供用語로 되는 과정 중에서, 세력을 잃고 감소한 대칭대명사라고 여겨진다.

향후 대칭대명사뿐만 아니라, 자칭대명사의 사용빈도 변화에 관하여도 연구하고, 점차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한다.

【자료편】

<표1>과 <표2>의 용례 수치의 근간이 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근세 前期 자료인 浄瑠璃는 『日本古典文学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紀海音의 작품과 近松門左衛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紀海音의 「八百やお七」, 「椀久末松山」, 「袖の白しほり」, 「傾城三度笠」, 「ふたつ腹帶」과 近松門左衛門의 「曾根崎心中」, 「薩摩歌」, 「心中二枚絵草紙」, 「卯月の潤色」, 「ひぢりめん卯月の紅葉」, 「堀川波鼓」, 「五十年忌歌念仏」, 「心中重井筒」, 「心中万年草」, 「丹波与作待夜の小屋節」, 「淀鯉出世瀧徳」, 「心中刀は氷の朔日」, 「冥途の飛脚」, 「今宮の心中」, 「夕霧阿波鳴渡」, 「長町女腹切」, 「大経師昔暦」, 「生玉心中」, 「鎧の権三重帽子」, 「山崎与次兵衛寿の門松」, 「博多小女郎波枕」, 「心中天網島」, 「女殺油地獄」, 「心中宵庚申」을 사용하였다.

근세 後期 자료인 洒落本·滑稽本·人情本은 『日本古典文学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丹波屋利兵衛, 山東京伝, 式亭三馬, 為永春水の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丹波屋利兵衛의 「遊子方言」, 大田南畝의 「甲駅新話」, 山東京伝의 「古契三娼」, 「傾城買四十八手」, 「繁千話」, 「傾城買二筋道」, 式亭三馬의 「浮世風呂」 「浮世床」, 十返舎一九의 「東海道中膝栗毛」, 「酩酊氣質」, 為永春水の 「春色梅児誉美」, 「春告鳥」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 민승희(2007) 『近世日本語 人称代名詞の特徴』 시간의 물레 p.192 p.205
 江湖山恒明(1938) 「「おまへ」の系譜」 国語と国文学15-2 東京大学国語文学会 pp.49-64
 金田一春彦(1988) 『日本語百科大辞典』 大修館書店 p.97
 小島俊夫(1982) 「滑稽本·人情本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 5.近世の語彙』 笠間書院 p.252
 小松寿雄(1971) 「近代の敬語Ⅱ」 『講座国語史5.敬語史』 大修館書店 pp.322-323 p.336
 坂梨隆三(1987) 『江戸時代の国語一上方語一』 東京堂出版 pp.199-225
 杉本つとむ(1975) 『女ことば誌』 雄山閣 p.186
 田中章夫(1973) 「近世敬語の概観」 『敬語講座4.近世の敬語』 明治書院 pp.16-19
 辻村敏樹 (1994) 『敬語の史的研究』 東京堂 pp.175-208 p.205
 寺島浩子 (1981) 「近世敬語と現代敬語」 『講座日本語学 9.敬語史』 明治書院 p.209
 山崎久之 (1963)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 武蔵野書院 pp.70-206
 湯沢幸吉郎 (1982) 『徳川時代語の研究』 風間書院 pp.37-46

要 旨

本稿は対称代名詞が近世前期上方語から後期江戸語へ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ったか、その変化と変化の要因に注目して考察する。近世の対称代名詞の中、特に変化が著しい代名詞としては「おめへ」、「てめへ」、「おぬし」、「わがみ」、「わごりよ」、「あなた」、「きさま」、「こなた」、「そなた」、「こなさん・こなさま」があげられる。

「おめへ」、「てめへ」は近世前期の資料では使用例が見当たらないが、近世後期では多用された代名詞である。後期に対等または下位の聞き手に対して使われた代名詞で、待遇価値はあまり高くなかった。このようにあまり高くない待遇価値を表す「おめへ」、「てめへ」が後期に多用されたのは、近世後期に社会的にあまり高くない階層であった町人が社会の中心勢力として登場したことと深く結び付いている。町人が社会の主導的な勢力になるにつれ、町人の言葉とも言える「おめへ」、「てめへ」も後期に使用が急激に増加するようになった。

また、「おめへ」、「てめへ」の成長によって、ほぼ同じ待遇価値を表した「おぬし」、「わがみ」、「わごりよ」は近世後期江戸でその使用が減少するようになった。

一方、「あなた」、「きさま」は近世前期上方から江戸に受け継いで広く使用された。「あなた」、「きさま」は待遇価値が高い代名詞であったので、上方語は品のある言葉として受け入れる当時の固定観念の影響で後期にも広く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と思う。

また、近世前期に上位または対等な関係で使用された「こなた」、対等または下位の相手に使用された「そなた」は使用頻度が高い前期上方の代表的な代名詞であった。しかし、近世後期に「こなた」と「そなた」の用例は社会変化に対する適応力が乏しい武士や老人の言葉から発見されるだけで、用例数は急激に減少する。「こなた」と「そなた」の減少は前期上方語の衰退を代表的に見せてくる現象である。

最後に「こなさん・こなさま」は近世後期に遊理語から男女共用語へ変化していく課程の中、勢力を失い、使用が減少した代名詞である。

今後、対称代名詞だけではなく、自称代名詞の使用頻度の変化に関しても研究し、研究の範囲を拡大しようとする。

キーワード：近世、上方、江戸、使用頻度、対称代名詞、社会変動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계 재 확 정 일 : 2015. 7. 4